

충렬공 탄신 800주년 경모제전 성황리에 개최



지난 4월 28일 안동시 녹전면 죽송리 충렬공 할아버님 재실에서 고유제를 올리고 이튿날 안동탈춤 공연장에서 충렬공 탄신 800주년 경모제전이 성대하고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먼저 28일 오후 6시 충렬공 할아버님 재실인 음수재(飲水齋)내 할아버님을 모신 영정각에서 고유제를 전국에서 오신 150여명의 종인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미려한 흥가에 따라 엄숙하게 진행되었으며 현관은 鳳會 대종회장이, 執禮는 東洙 대종회부회장(안동종친회장)이, 찬인에 (都)영복 전 대종회 이사, 좌우집사에 (郡)泰榮, (文)榮煥 대종회 이사가 맡았으며, 고유문은 (都)昌會 대종회 고문이 짓고 (按)聖會 전 대종회 부회장이 쓰고 (按)聯會 대종회부회장(청주 종친회장)이 읽었고, 應唱은 (按)泰文대종회 부회장(안동 사공과종회장)이 맡았다.

경모제전은 이튿날인 4월 29일 오전 10시 30분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개식선언, 국민의례, 인사소개, 표창, 경북대학교 장동익 교수의 충렬공 소

개, 대종회장의 식사, 권영세 안동시장의 환영사에 이어서 경상북도지사 김관용님을 대리한 경상북도 문화체육관광국 김상준국장님의 축사 대독을 사양함으로 김광립 안동출신 국회의원, 김백현 안동시의회의장,

이재춘 안동문화원장의 축사와 아울러 고려 동안거사 이승휴의 충렬공에 바치는 시단모부를 낭송하는 순서로 경모행사를 마쳤다.

식전행사로 민요 독창과 충렬공에 관한 영상물 상영이 있었고 대종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국민의례, 인사소개는 초청자 명단을 영상으로 보면서 주요내빈을 소개하였고, 표창은 충렬공 현양에 노력한 안동시 녹전면체육회에 대종회장의 감사장과 체육회 발전기금으로 이백만원의 전달하였고 충렬공 묘소를 대종회 설립 이전까지 수호 관리하고 위토를 마련하는 등 충렬공 유적관리에 공이 있는 소산본

중과 사촌문중에 공로장과 상금 각 일백만원씩을 안동김씨 최초 족보인 경진보 유일본을 400여 년간 보존하다 대종회에 기증한 안렴사공과 용세종친과 이번 경모제전 논문집 발간에 진력한 (文)영환종친에게도 공로장과 각 일백만원의 상금을 전하고 이어 충렬공 탄신 800주년 기념 사진전 입상자에 대한 대종회장상과 (재)한국디지털사진협회장상이 수여되었다.

이어진 충렬공 소개에서 경북대학교 사학과 장동익 교수의 충렬공에 대한 자세한 이력 소개가 있었다. 봉회 대종회장은 식사에서 전국에서 오신 안동김씨는 물론 타성씨와 유림 여러분의 왕림에 감사의 표하고 물심양면으로 이번 행사에 협조하여 주신 경상북도 및 안동시 당국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충렬공 할아버님의 위업을 이어 받아 앞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일하는 안동김씨가 되어야 하고 꼭 되도록 노력하자고 하였고, 권영세 안동시장, 김광

외부인사 330여명, 안동김씨 종친 1200명 등 탈춤 공연장을 가득메워...

립 국회의원, 김백현 안동시의회의장, 이재춘 안동문화원장도 환영사와 축사에서 위대한 안동인 충렬공 할아버님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면서 우리 민족의 선조자이신 충렬공을 따라 우리도 조국과 민족의 영원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자고 하였다. 이어진 현시는 성우 반은혜가 하였는데 고려의 명현인 동안거사 이승휴선생이 충렬공께서 상락군개국공의 작호를 받은 데 대한 축하의 시를 낭독해 올리고나서 경모제전을 모두 마쳤다.

이날은 날씨도 청명하였으며 안동시민을 전국에서 타성씨 및 유림의 참석자가 330여



명과 이영식, 김명호 도의원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외에 우리 종인이 1,200여명으로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전국 멀리서 전남 보성, 경기도 파주, 강원도 강릉, 부산 등지에서 버스 20여대에외에 다수의 차량으로 참석한 우리 안동의 경모행사가 끝난후 안동시 녹전면에 소재한 음수재를 찾아 충렬공 묘소에 참배하므로 이

날 할아버님 묘소에 참배한 인원은 사상 최다였다고 한다. 이번 충렬공 탄신 800주년 경모제전과 함께 개최된 안동 김씨관련 사진전은 탈춤공연장 박 노천광장에서 개최되었는데 90여 편의 입선작이 전시되었고, 이와 함께 대종회에 보관중인 옛날 사진도 함께 전시하여 1940년, 1970년대의 음수재와 현재의 음수재, 1940년대의 충렬공 묘소와 현재의 묘소를 비교하는데 도움을 주는 등 좋은 결과가 있었다.



* 會長式辭 *



만 장 하 신
내외 귀빈 여
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존
경하는 안동
시민과 안동
김씨 현종 여러분 전국 방방
곡곡에서 먼 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곳 양반의 고장
안동까지 찾아주셔서 고맙습
니다.

만장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우리 안동김씨 시조
방자 경자 할아버님께서 추로
지향 안동에서 태어나신 지
800주년이 되는 해로, 좋은 오
늘을 택해서 탄신 경모 행사

를 거행하는 성스러운 날입니
다. 권영세 안동 시장님을 비
롯하여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김상
준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
장님, 김광립 안동출신 국회의
원님, 안동시의회 김백현 의장
님, 이재훈 안동문화원장님,
안동향교 유기흥 전교님, 경북
일원 각 종택 종손 어른 여러
분과 대한민국 양반가문 대표
자 여러분, 본 경모제 행사에
왕림하신 모든 분들께 전 안
동 김씨를 대표하여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우리 중시조님 약력이
조금 전 소개되었으며 또한
논문집과 제전 판플릿에 소개

된 바와 같이 우리민족의 훌
륭하신 선구자입니다. 또 한
안동에는 내노라 하는 명문거
족 들이 많습시다만은 그 가
운대는 여러 훌륭한 가문들이
우리 충렬공으로 인하여 안동
에 입향하는 계기가 되고 자
손들의 혼맥으로 인하여 영향
을 끼친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안동과 충렬공 중
시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
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이 점
은 우리 안동김본 모두의 영
광이요, 다 같이 공감하는 부
분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중시조 어른의 나라에 대한
영향력만큼이나 우리 안동 사
회에 미친 영향은 또 있습니

다. 어느 학자 연구서에 보면
안동소주와 하회달이 안동에
들어온것도 우리 충렬공과 관
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 처럼
안동문화에서도 지대한 영향
이 미친 것으로 볼때, 800년이
된 오늘 할아버님 탄신 경모
제를 갖게 된 점은 때늦은 일
이지만 참석하신 모든 분과
함께 축하하게 되어 다행스럽
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행사를 위해 불심양
면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안
동시와 시의회, 경상북도 및
안동문화원 그리고 안동김씨
안동종친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본 행사
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찬

석하신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귀빈 여러분! 혹여나 오늘
행사 진행에 잘못된 점이나
불편하신 부분이 있더라도 널
리 양해해 주시고, 본 행사 진
행에 끝까지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사가 끝
난 뒤 돌아가실 때에도 모든
점에 주의하시고 앞으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안동
김씨 전 종인과 함께 진심으
로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4월 29일

안동김씨 대종회장 김 봉 회

현 시

충렬공께서 치사하신지 12년이 되는
1295년에 상락군개국공이라는 공작의
작위와 함께 안동을 식읍으로 받으셨습
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왕족을 제외하고
는 공작의 작위를 받으신 분은 몇 안 되
는 영예로운 일입니다. 동안거사 이승휴
는 단모부 서문에서 공작에 대해서 다
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공작(公
爵)이란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등 다
섯 등급의 제후(諸侯)중에서도 으뜸가
는 작위이다. 밖으로 나가면 모든 제후
중에 으뜸이고, 천자에게 들어가면 천자
바로 다음이다.”

동안거사 이승휴가 충렬공께서 상락
군개국공의 공작의 작위를 받으신데 대
해 축하하는 글로 단모부라 이름지어
운문형태의 부를 올렸습니다.

이승휴는 민족문화와 민족사의 독자
성에 대한 자부심을 기록한 《재왕운기》
를 지은 분으로 충렬공보다 12년 늦게
태어났고, 충렬공과 같은 해에 돌아가셨
습니다.

단모부의 서문은 길어서 생략하고 사
(辭)만 실겠습니다.

旦暮賦 動安居士 李承休
靈君誕作兮啓風雲
碩輔司升兮圖經
緯復赤忠兮相三韓
首黃扉兮纓萬彙
朝升朝兮奏膚功
路東路兮都元帥
軍師百萬兮益辦多
春秋八十兮又過四
神清氣壯兮身其康強
年高德邵兮人稱嘆美
中宸圖舊兮篤不忘
東宮監國兮嘉政理
期滿後賢兮用以褒崇
開國上洛兮公而龍興
嗣子令公兮身襲越篇
季男學士兮門填桃李
諸孫烜赫兮盈庭
實從權譚兮塞里
摩肩獻壽兮趨踰
行路言賢兮涕泗
未有王荊公兮讀經綸
唐有郭汾陽兮蓋終始
歌騰朝野兮薦遐齡
話及漁樵兮誇盛事
猿鳴鶴唳兮送歡聲
柏悅松欣兮陳賀意

단모부 동안거사 이승휴
성군(聖君)이 태어남이어! 풍운(風雲)의 길을 열고,
재상과 함께 조정에 진출함이어, 경위(經緯)를 도모하셨다.
타고난 충성심(忠誠心)을 다하여 삼한(三韓)을 도우고,
정승(黃頭)에 으뜸이 되매, 만백성을 편안케 하시었도다.
중국(中朝)에 조회를 가서 큰 공을 아뢰고,
일본정벌(東路)에 선봉이 되니, 도원수가 되시었도다.
군사가 백만이 됨이어, 더욱 더 잘 다스렸고,
춘추가 80세에 4년이 지났셨도다.
정신은 맑고 기운은 장대함이어, 기력이 강건하셨네.
연세가 많고 덕이 높으니, 사람들이 감탄하고 칭찬하도다.
입금(中宸)께서 옛 신하를 생각하여 돈독하게 잊지 않으시고,
세재(東宮)께서 나라를 감독함이어! 태평정치를 아름답게 이루었도다.
후원들을 격려하기를 기약함이어, 포상하여 책봉하니,
상락군개국공(上洛郡開國公)으로 봉하여, 공작(公爵)의 은총을 내려주셨네.
만아들 영공(令公)은 월편(越篇)을 계승했고,
막내 아들은 학사가 되어 문 앞에 사람들이 물려 들었도다.
여러 손자들의 빛남이어, 뜰에 가득하고
손님들이 환호하며 왁자지껄함이어! 마을에 가득하도다.
수많은 사람들 어깨를 부딪히며 현수하고 종중걸음치니,
길가는 사람들도 공(公)을 어질다 말하며 눈물을 흘리도다.
송나라 왕형공(王荊公)이 있음이어! 경문을 거를바가 못되며,
당나라 관분양(郭汾陽)이 있음이어! 그 모두가 미치지 못함이라.
송축(頌祝)의 노래 소리는 조야(朝野)에 드날림이어! 장수(長壽)를 축원하고
미담이 어부와 나무꾼에게도 미침이어, 성대한 일을 자랑하도다.
원숭이가 울고 학이 울음이어 환성으로 전승하고,
잣나무가 좋아하고 소나무도 기뻐하며 축하의 뜻을 베풀도다.

告由祭笏記

諸參祀者序庭入就拜位

贊引引祝及諸執事者盥洗位盥水洗手諸執事者

再拜各就位

陳設

贊引引獻官詣占視陳設仍降復位

行焚香禮

贊引引獻官詣盥洗位盥水洗手贊引詣香案前跪

右執事奠于香案上左執事奉香盒奠于香案上獻

官進三香俛伏興獻官小退再拜仍降復位

行降神禮

贊引引獻官詣神位前跪左執事以酌授獻官獻官

以後左執事右執事斟酒左執事奠于神位前三除于

俛伏興獻官小退再拜仍降復位

行參神禮

贊引引獻官詣神位前跪左執事以酌授獻官獻官

以後左執事右執事斟酒左執事奠于神位前正著

諸參祀者皆俯伏祝官詣神位前獻官之左東向跪

讀祝興獻官小退再拜仍降復位

行辭神禮

獻官以下諸執事及參祀者皆辭神再拜

忠烈公誕辰八百周年 告由文

維歲次壬辰閏三月壬子朔八日己未安東金氏

維歲次壬辰閏三月壬子朔八日己未安東金氏

顯二十四代祖考高麗推忠協謀定難靖國功臣

諡上三韓三重大臣金忠獻公貴世子師上洛郡

開國公諡忠烈府君

恭惟我祖大顯麗朝康宗壬申誕于斯世

母有娠夢雲霞瑞氣少長安東王考膝下

器局弘大貞忠信厚十六歲仕位至中贊

千古昭昭社稷功存葬于竹松七百餘年

歲次壬辰誕辰八百雲仍徽誠感慕無極

春和已未敬薦洞酌翌日庚申福州殿堂

士林雲集偉業顯揚伏惟尊靈庇護啟格

환영사



따뜻한 봄기운이 감도는 이곳 한 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에서 고려시대 안동이 낳은 위대한 인물인, 충렬공 김방경 선생 탄신 800주년을 맞이하여 경모제전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선생께서는

우리 역사상 국권을 바로 세우고 우리 강토를 왜적으로부터 지켜내어 자주국방을 실현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선생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한 『충렬공 탄신 800주년 경모제전』을 준비하여 주신 김봉희 안동김씨대종회 회장님을 비롯한 추모사업회 위원님 그리고 원근 각지에서 찾아 주신 종문 여러분의 안동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날 안동은 역사적으로 유·불·선 문화로 이어지는 시

대별로 다양한 문화가 서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동문화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고려시대의 안동은 고려왕조의 건국에서부터 부흥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영향을 끼쳤을 뿐 아니라 안동문화의 전통을 확립하는 밑거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 중심에 고려를 지킨 충렬공이 있었으니 그 자취와 업적은 팔백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후세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충렬공은 고려시대 안동이 배

출한 인물 가운데 역사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분입니다. 공은 원나라의 강력한 지배 하에서 한 국가의 안위를 책임져야 했던 장수로서 또한 재상으로써 국난을 이겨내기 위해 보여주는 기개는 안동 선비정신의 사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선생을 『고려사』에서는 충렬공은 지장(智將)이자 덕장(德將)이며 용장(勇將)이었으며, 문무를 겸전하여 고려를 위해 헌신한 명재상이었습니다.

선생의 업적을 재조명하는 행

사를 통하여 나라사랑 정신과 선생의 문위가 선양되어 정신문화의 고장으로 돌보이길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번 고려 충렬공 탄신 800주년 경모제전을 축하드리며, 안동김씨대종회의 무궁한 발전과 품격 높은 도시 행복안동을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4. 29
안동시장 권영세

祝 辭



오늘 우리는 안동이 배출한 위대한 영웅 충렬공(忠烈公) 김방경(金方慶) 선생 탄신800주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충렬공께서는 고려 중기인 1212년 안동에서 태어나신 무인(武人)이자 정치가로서 중앙무대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로서 (先)안동김씨(安東金氏) 중시조(中始祖)로 모셔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先)안동김씨는 우뚝한 인물을 많이 배출하여 우리나라를 이끌어 온 명문가(名門家)로서 여러분들이 이미 고려 조정에 진출하여 권문세가(權門勢家)로 자리 잡았고, 후에도 훌륭한 인물이 대거 배출되면서 충렬공 현손(玄孫) 대(代)에서 여러 파(派)로 분파되어 안동김씨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충렬공께서는 1270년 6월 삼별초의 난으로 함락 직전의 전주와 나주를 방어하고 탈라(耽羅 제주)로 잠적한 삼별초 반란군을 토벌하는 등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해내는 큰 공적

충렬공 김방경장군 탄신800주년기념

을 쌓았으며, 1274년 10월에는 남해안 일대를 침탈하는 왜구(倭寇) 토벌을 위한 여원(麗元) 연합군의 총사령관(都督使)으로서 일본 정벌에 참여하여 큰 전과를 올리는 등 일찍이 바닷길을 통한 해상왕국 건설의 꿈을 펼치려했던 시대를 앞서간 영웅이었습니다.

충렬공의 후예는 조선시대에 들어서도 임란(壬亂)공신 원주목사 제갑(梯甲)과 조카 시민(時敏)·시약(時若) 형제, 청백리 시양(時讓)과 아들 이조판서 휘(徽), 숙종 때 시인 득신(得臣), 영의정에 추증된 무장(武

將) 응하(應河)와 훈련대장 응해(應海) 형제, 훈련대장 중기(重器) 등 수 많은 과환(科宦)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역대 충무공(忠武公) 시호(諡號)를 받은 9분 중 2분(김시민, 김응하)과 삼도수군통제사 10분을 배출하였으며, 온 국민의 추앙을 받고 있는 백범(白凡) 김구(金九) 선생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도 안동김씨 가문이 배출한 애국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충렬공께서 남기신 호국충절(護國忠節)의 고귀한 정신이 후손들에게 이어져 우리 안동인(安東人)들은 나라

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목숨 바쳐 나라를 구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이러한 정신이 승화되어 오늘날 우리 안동(安東)은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으로 탄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충렬공(忠烈公)께서 남기신 호국충절의 숭고한 정신을 가슴깊이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4. 29
국회의원金光林



금년 이 충렬공 김방경 선생의 탄신 8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충렬공 탄신 800주년 경모제전이 이곳 안동에서 이렇게 성대하게 개최된 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충렬공 김방경 선생의 탄신 800주년 경모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김

봉희 안동김씨대종회장님, 800년전의 인물이라 기초 자료가 부족한 가운데도 훌륭한 성과를 내어주시어 논문집을 발간하게 해주신 안동대 이해영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 그리고 대종회편집위원 여러분께 안동인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안동은 시대별로 다양한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전통문화의 고장으로 특히 유교문화의 중심지로 한국정신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안동에 답

긴 고려시대 역사와 문화가 유교문화의 메카로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고려시대 안동은 국왕 셋이 안동을 방문한 것만 보아도 고려 역사의 중심지였으며, 이들 바탕으로 많은 안동출신 인물들이 중앙에 진출하였는데 그중 가장 주목되는 분이 바로 충렬공으로 16세의 어린 나이에 벼슬로 나아가 72세에 벼슬에서 물러날 때까지 명장으로 재상으로 나라가 혼란한 시기에 충직한 국가관으로 봉사하였습니다.

또한 선생은 투철한 국가관과

올곧은 기개로 나라를 지키려 했으며, 백성의 삶을 돕는 원칙을 버리지 않고 선비정신을 실천한 분입니다. 이처럼 우리고장 안동이 배출한 충렬공의 높은 학문과 숭고한 덕행을 기리기 위해 탄신800주년을 맞이하여 충렬공 김방경 선생의 탄신 800주년 경모제전은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의 충렬공 김방경 선생의 탄신 800주년 경모제전이 잊혀져 가는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훌륭한 사상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나

가는 계기가 되며, 후손들의 자긍심 고취에 큰 길잡이가 되어 주길 간절히 바라며, 다시 한번 충렬공 김방경 탄신 800주년 경모제전을 축하드리며, 김봉희 안동김씨대종회장님, 도움을 주신 여러 교수님을 비롯한 대종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깃들시길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4월 29일
안동시의회의장 김백현



먼저 유교의 본향인 우리 안동에서 충렬공 김방경 공 탄신 800주년 기념행사를 가진데 대하여 뜻깊게 생각하면서 축하를 드립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충렬공은 안동이 낳은 문무를 겸비한 큰 인물로 존경받고 있음은 물론 나라의 운명과 국사에 많은 공헌을 한데 대한 재조명의 기회를 갖게 돼 더욱 반갑습니다.

또한 후손들도 2000년 전국에 42만 5천명, 15개 파의 명분거족으로 번성하였습니다. 후손 중에는 백범 김구선생 같은 훌륭한 분도 나오셨습니다.

충렬공은 감찰어사, 금오위대

장군, 형부상서, 추밀원부사, 문하시랑 평장사 등의 관직을 두루 거쳤으며, 삼별초의 난을 평정하고, 특히 고려군 도원수로 일본을 정벌하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상락군개국공에 봉해지고, 벽상삼한 삼중대공에 추증되었으며, 충렬(忠烈)이라는 시호를 하사받고 왕명으로 신도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충렬공은 무관으로 출발하였지만 학문에도 뛰어나 장군으로

서는 드물게 급사중, 어사중승, 지합문사, 지어사대사를 겸하시고, 어사대부에 임명되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충렬공은 부지런하고 이치에 밝아 지방관으로 서북지방을 다스릴 때는 은혜를 베풀고 위엄을 보임으로써 그곳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송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어른을 중시조로 모신 안동김씨 후손 여러분들께서 충렬공 탄신 800주

년을 기념하고 조상을 기리는 정신을 우리들도 본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안동시와 안동영상미디어센터에서는 전하에서 존경받는 덕과 나이와 벼슬이 세가지 다 얻은 상락군에 대한 영상물 제작에도 검토·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렬공 후손들의 영원한 영광을 기원하면서 저의 인사로 가겠습니다.

- 안동문화원장 이재춘 -

충렬공 탄신 800주년 기념 사진전 우수작



▲ 충렬공 신도비



▲ 충민사 설경



▲ 영모재 입구



▲ 도암사

만사(晩沙) 김진중(金振鍾)공의 신타래

차조문경덕왕릉수비운(次召文景德王陵豎碑韻)



의성의 뿌리 조문국의 사료를 찾으려 의성 선현들이 남긴 한시(漢詩)에 접근하여 본다 이제 까지 집필재 김종직 뇌계 유효인 우천 박정훈 초간 권문해 미수 허목 선생 오극겸의 전설 같이 남긴 조문국 시문에서 벗어나 의성 선현의 한시를 정리하여 보았다 만사 김진중 공은(1883.1.13. ~ 1951.4.8.) 자는 성언(聲彦) 호는 만사(晩沙)이며 관향은 안동이다 공은 어려서부터 학업에 정진하여 경사자집(經史子集)과 백가서(百家書)에 섭렵하여 시율(詩律)에 통달한 시의 대가였다 공이 압울한 시기에 일본과 조선 팔도 전역을 유람하면서 가는 곳 마다 시

로 남겨둔 글은 오늘날 한세기 를 살펴 볼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2003년도 만사문집 출판기념에 참여하여 축사를 한 후 문집을 살펴보니 시문이 134수로 그 가운데 조문경덕왕릉비를 세우면서 운한 시가 있었다 그 이전 1996년 이진태 선생은 소주읍사에서 분소역대 한시집 을 발간하였다 그 곳에 만사공 의 차조문경덕왕릉수비운이 등재되었다 언젠가 소개할 마음을 가지다가 2011년 신미년을 맞아 재지 의성 선현의 조문국 시를 만나는 기회를 열어 본다 경덕왕릉비 는 세차례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 맨 처음으로 단기4257년 갑자(甲子)5월

금성면 김희순 외 관민 발의로 이상호 군수의 지원을 받아 심재(深齋) 조금섭(曹鍔燮)의 찬으로 세워졌다 비와 비문에 대한 자료가 보존되지 않아 금강하단차에 고문서 수집가인 김부일 선생으로부터 비문을 접수하게 되었다 만사공의 시 또한 이시기로 본다면 공의 나이 41세에 조문국의 경덕왕릉에 비를 세우고 글을 지은 것으로 간주하여 볼수 있다

次召文景德王陵豎碑韻

召文往跡杳千秋
曠感興懷涕欲流
世涼嗟無徵國史
禮精應有格靈休
杉松增彩新狀座
葵麥堪憐舊殿樓
敬肅餘芬猶未泯
行人咸式古城頭

차조문경덕왕릉수비운

조문국의 지난 자취 천추에 아득하고
공허한 감흥에 일어나는 회한에 눈물 흘러네
차좁다 세대가 멀어 역사를 찾을수 없으나
정성드려 제사모시니 혼령은 알지로다
삼나무와 소나무 빛이 새롭운데
가련하다 옛날의 궁전들 빈터만 남았으나
경건하게 향불 올리는 아직도 여전하니
김손들은 너 나 없이 옛성터라 말하네

『(都)김 역 대중회이사 제공』

2012년 판서공, 충숙공, 평리공, 군사공 향사봉행



〈초헌관 중목 판서공회장〉

지난 4월 8일(일), 안동김씨 판서공종회 중목 회장을 비롯한 경향 각지에서 150여 종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강진군 작천면 토마리 선영에서 안동김씨 증시조이신 상락 충렬공 김방경의 長子이신 판서공(휘 愼), 孫子 충숙공(휘 承用), 曾孫 평리공(휘 厚), 玄孫 군사공(휘 七陽) 4代位の 시향제가 단소와 묘소에서 차례로 엄수되었다.

제일 먼저 상단에 모셔진 판서공(휘 선)의 상석에 제수의 진설이 완료되고, 집례와 창홀을 맡은 윤만(문. 총무이사)씨의 낭랑한 목소리가 금릉산 골짜기로 울려 퍼진다.

“獻官以下諸參祭員就位序立 (헌관이하제참제원 취위서립)

헌관 이하 모든 참제원들은 제자리에 서 주시오”

전통 제례복(도포)과 유건을 쓴 제관들과 모든 집사들은 엄숙하고도 질서있게 각자 위치에 도열하였다.

중목 회장의 초헌례가 시작되고 독축, 아헌례, 종헌례를 순서에 따라 봉행하였다. 다음으로 충숙공, 평리공, 군사공 할아버지까지 차례로 봉행

하고 산신제까지 마쳤다. 약 1시간여에 걸쳐 향사를 마치고 바로 묘역 아래서 판서공종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회의 자료를 배포하고 수석부회장 춘교(인천종친회 회장)씨의 사회로 경과보고와 감사보고에 이어 중목회장의 강진 영모재와 묘역 새단장에 따른 앞으로의 추진 사항을 설명하였다.

이날 점심식사는 군사공과 칠정분중에서 150인분을 주접하게 준비하였다.

분정록은 다음과 같다.〈표1〉

전날 4월 7일 오후 6시에 군동 재실에서는 50여 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운공(휘 墩: 군사공의 三子) 이하 8代位の 향사를 올렸다.

판서공 고문이신 재은(부)씨의 90세의 노구에도 노련한 독축과 함께 후손(군사공파종회 고분) 선목씨의 초헌례를 시작으로 엄숙하게 봉행되었다.〈표2〉

제사를 올리기에 앞서 군사공파종회 태영(필자) 총무는 부운공(휘 돈) 할아버지에게 내린 세종대왕의 사제문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제분숙에 나타난 부운공 돈(墩) 할아버지의 역사적 배경과 우리 후손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대목을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이 사제문은 40행 4언 시에 부운공 할아버지의 학문과 관직에 이르기 까지 성품을 잘 표현한 분장이다.

강진의 시제는 금년부터 매년 양력 4월 둘째주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군사공파종회 총무 태영 제공」



〈부운공(휘 墩: 군사공의 三子) 이하 8代位の 향사〉

世宗大王賜祭于仁壽府尹金墩

인수부운 김돈을 애도(哀悼)하는 세종대왕의 제문 惟卿 생각하건대, 경은

資稟粹異 才품이 수이(粹異)하고
學問精深 학문이 정심(精深)하여,
蚤播華譽 일찍이 빛나는 명예를 퍼서
表褫詞林 사림(詞林)을 표박(表褫)하였다.
選置經帷 경연(經帷)에 뽑아두고
以資啓沃 계육(啓沃)의 바탕을 삼으니,
古今之辨 고금을 변정(辨正)함과
性理之說 성리(性理)의 학설에 있어서
左右逢源 좌우로 근원을 만나
毫分纖析 자세히 분석하였으매,
予心是嘉 내 마음에 아름답게 여겨
眷注采薦 사랑함이 깊고 두터웠도다.
卿有老母 경의 노모(老母)가
 멀리 강진(康津)에 있음에
경을 외직에 보(補)하기를 아깝게 여겼고,
경이 모친을 생각할까 가엾게 여겨
특별히 어머니를 수레에 모시게 명하여
조식을 같이 하도록 하였도다.
간의(簡義)를 감독하여 만들게 하니
제작(制作)이 새로왔고,
승정원의 장(長)으로 뽑아서
기밀을 관장하게 하였더니,
출납(出納)이 밝고 진실하였으며,
대모(大謨)에 힘써 부지런하였도다.
더욱 큰 그릇으로 중히 여겨
좋은 보필이 되기를 기약하였더니,
그 약하고 병들음을 민망히 여겨
한직(閑職)으로 승진 제배(除拜) 하였노라.
좋은 약재를 내려주어
날마다 회복하기를 바랐었는데,
어찌하여 수명(壽命)이 길지 못하고
갑자기 영결(永訣)하게 되었는지,
어찌하여 자질은 풍부하게 주었으나
생명은 인색하게 주었는지,
영령(英靈)을 추상(追想)하니
진실로 슬프기 한이 없노라.
阮 降恤典 이에 흠전(恤典)을 내려
俾陳一卮 한 잔의 술을 드리게 하노니,
英魂有知 영혼(英魂)이 알아 있거든
尙宜饗之 이를 흠향하기 바라노라.

正統 5年(1440年) 世宗大王



◀제문을 설명하는 태영

〈표1〉 2012년 강진향사 분정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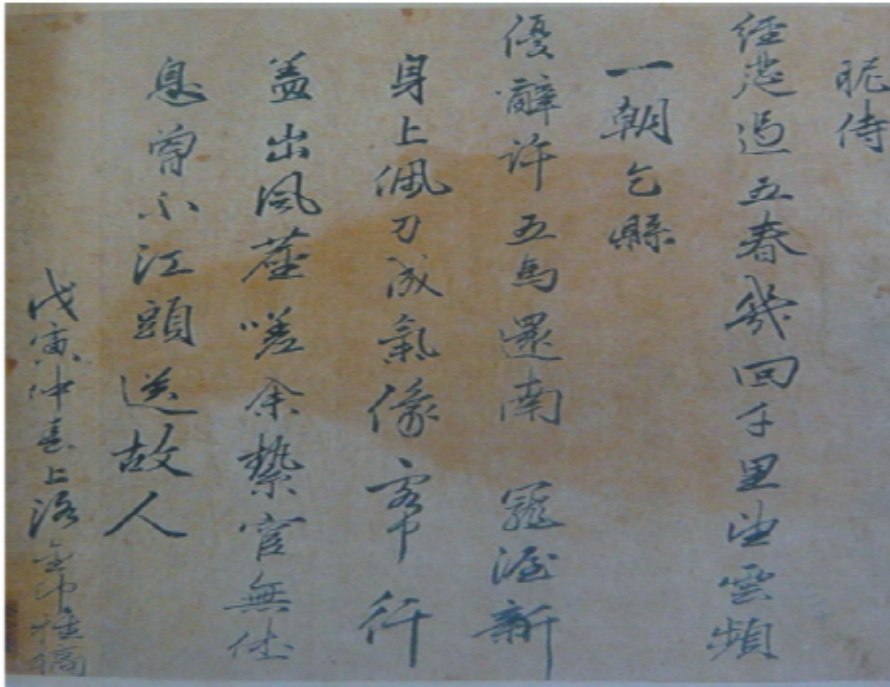
헌관(獻官)	판서공(判書公) 휘 선(愼)	충숙공(忠肅公) 휘 승용(承用)	평리공(評理公) 휘 후(厚)	군사공(郡事公) 휘 칠양(七陽)
초헌관(初獻官)	중목(郡) 판서공회장	근성(典) 전서공회장	이경(開) 개성문공회장	재화(郡) 군사공회장
아헌관(亞獻官)	공목(郡) 칠정문중	영국(文) 문온공회장	광도(文) 문온공 종손	재화(郡) 평택문중
종헌관(終獻官)	재은(副) 판서공 고분	재목(郡) 양천문중	재목(典)	홍수(郡) 광탄문중
집례(執禮) 창홀(唱筭)	윤만(文) 문온공 총무이사			
대축(大祝)	재화(郡) 칠정문중, 준회(郡) 군사공부회장			
좌집사(左執事)	재근(郡) 칠정문중			
우집사(右執事)	용회(郡) 칠정문중			
시도(時到)	관목(按) 전 대종회 사무총장			
제물(祭物)차림	이남(郡) 강진문중 회장			
중식(中食)차림	중목(郡) 판서공회장 칠정문중 150인분			

[군동재실 부운공 以下 8代位 향사봉행]
1.인수부운공(휘 墩). 2.담암부사공(휘 季老). 3.이조좌랑공(휘 石精). 4.충순위공(휘 廷健). 5.충순위공(휘 碩). 6.군기시직장공(휘 興業). 7.제용감잡봉공(휘 瑞鳳). 8.학생공(휘 汝深). 9.경성삼파만호공(휘 時範)

〈표2〉

군동재실	초헌관(初獻官)	아헌관(亞獻官)	종헌관(終獻官)	독축(讀祝)
헌관(獻官)	선목(郡) 장안문중	흥목(郡) 평택문중	재화(郡) 군사공회장	재은(副) 판서공고문

기묘제현수첩(己卯諸賢手帖)



홍문관 박사 안처순(安處順:1493~1534)이 부모 봉양을 위해 고향으로 돌아 갈 것을 주청하자 기묘사화 전년인 1518년(중종 13) 구례현감에 제수하였다. 이 때, 동료와 친구들이 이별을 아쉬워하며 써 준 송별의 글을 모아, 안처순의 사후에 제작한 것이다.

1603년(선조 36) 김인후(金麟厚)의 발문과 함께 당시의 전라도관찰사 한준겸(韓浚謙) 등의 주선에 따라 한석봉(韓錫奉)이 표제를 쓰고 관청 소속의 장인의 손에 첩으로 만들어졌다. 1829년(순조 29) 전라감영에서 다시 재본한 것을 순흥안씨 종중에서 소장하다가 1994년 5월 2일 보물 제1197호로 지정되었다.

여기에는 조광조(趙光祖)·성세창(成世昌)·김정(金淨) 등 사림파(士林派)의 기묘명현(己卯名賢) 24명 중에 우리 안동김문(安東金門)의 김공예(金公藝), 김익

(金翼) 두 분 선조님의 시(詩)가 함께 수록 되어 있다.

[友人安順之 以弘文博士歸養 特除求禮縣 諸友皆歌詠其行 予亦述懷以贈]

친구인 안순지(安順之)가 홍문관 박사(弘文館博士)로 재직(在職)하다가 부모 봉양을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청하자 주상(主上)이 특별히 구례 현감(求禮縣監)을 제수(除授)하였다. 이 때 여러 친구들이 모두 그의 떠나감을 노래로 읊거나 회포를 써서 주다.

昵侍經筵過五春 / 경연(經筵)에서 가까이 모시고 다섯 번 봄이 지났으니
幾回千里望雲頻 / 몇 번이나 천 리 멀리 부모 생각에 구름을 바라보았는가.
一朝乞縣優辭許 / 하루아침 고을을 청하자 우대하여 허락하시니
五馬還南臨濕新 / 오마(五馬) 타고 남쪽으로 돌아감에 은총이 새롭네.
身上佩刀成氣像 / 몸에 찬 칼은 기상(氣像)을 이루었고
客中行蓋出風塵 / 나그네의 일산(日傘)은 풍진을 벗어났네.
嗟余繫宦無休息 / 슬프다, 나는 벼슬에 매여 쉴 수 없어서
曾不江頭送故人 / 일찍이 강가에서 벗을 전송하지 못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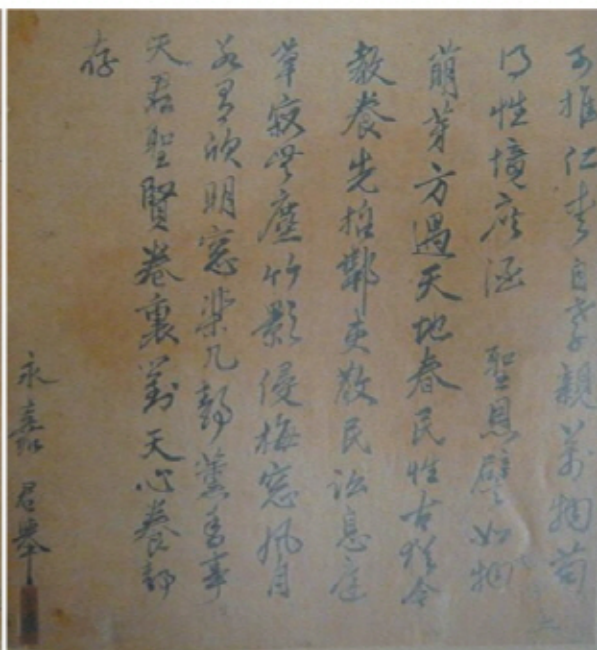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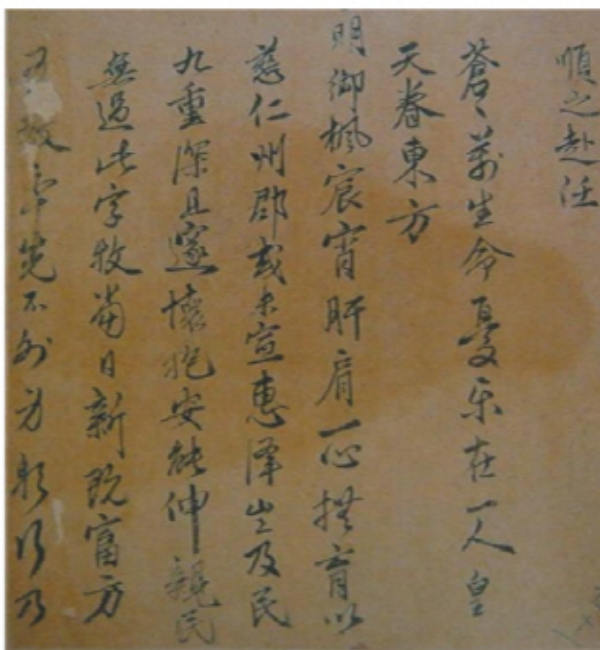
경연(經筵) : 조선시대에 왕에게 경사(經史)를 강독하고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논의하는 자리

오마(五馬) : 다섯 마리의 말. 전하여 태수(太守)를 달리 이르는 말. 원래 태수의 수레는 네 마리 말이 끄는 수레였는데, 이외에 한 마리의 말을 결말로 따라 다니게 한데서 이와 같이 부르게 되었음.

김공예(金公藝: 1485~1537)

자(字) 중아(仲雅),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부친은 현감 김계(金塋)이다. 일찍이 문과에 급제하여 승정원의 동부승지(同副承旨)와 예조참의에 이르렀다. 청백함을 스스로 지켰으며, 부모가 연달아 상을 당해 여묘(廬墓)를 짓고 살다가 상중에 별세하였다.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은 천명에 달려 있으니 내 다시 무엇을 한하겠는가. 다만 국가의 은혜를 받았는데 덜갈만큼도 보답하지 못하니, 이것이 마음 아프다"라고 하였다. 그의 묘는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지리(陽地里)에 있으며, 묘갈문을 성세창(成世昌)이 짓고 김노(金魯)가 썼다.

[送順之赴任] 부임하는 순지(順之)를 전송함.



境庶涵聖恩 / 온 백성들이 성은(聖恩)을 입으리.

譬如物萌芽 / 마치 식물에 싹이 터서

方遇天地春 / 천지의 봄을 맞는 것과 같다네.

民性古猶今 / 백성의 본성은 예나 지금이나 같으니

教養先哲鄰 / 가르치고 기르는 명철한 신하를 먼저 해야 하네.

更散民訟息 / 아전을 흩어지고 백성의 송사(訟事) 그치니

庭草寂無塵 / 뜰의 풀도 조용하여 먼지가 입지 않네.

竹影侵梅窓 / 대나무 그림자 매화 창가에 드리우고

風月若有欣 / 바람과 달은 기쁜 듯 맞이하네.

明窓斐几靜 / 밝은 창가에 비자나무 책상 조용한데

薰香事天君 / 향을 살라 천군(天君)을 섬기네.

聖賢在對對 / 성현(聖賢)을 책 속에서 대하니

天心養靜存 / 천심(天心)을 고요할 때 보존하여 기쁘다네.

김익(金翼 : 1484~1548)

자는 군거(君舉)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부친은 경력(經歷) 언홍(彦弘)이다. 조광조(趙光祖)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1519년 급제하여 언사(言事)를 담당했다. 1519년 기묘사화에 조광조 등이 부옥되자, 유인숙(柳仁淑)·공서린(孔瑞麟)·홍언필(洪彦弼) 등과 함께 조광조와 같이 옥에 갇히겠다고 소(疏)를 올렸으나 허락되지 않았다. 1521년 송사련(宋祀連)의 무고로 안당(安塘)·안처겸(安處謙) 부자 등이 처형된 신사무옥(辛巳誣獄)에 연루되어 유배되었다. 1545년 명종이 즉위한 후 용담현령 등을 지냈다. 묘는 경남 산청군 생초면 원곡리에 있다.

안처순(安處順: 1493~1534)

자(字)는 순지(順之)이고 본관은 순흥(順興)이다. 호는 기재(幾齋)·사재당(思齋堂)이며, 남원 출생으로 1514년(중종 9) 문과에 급제하였다. 홍문관박사로 있다가 구례 현감으로 나아 갔다. 1519년 기묘사화로 파직, 축출되었으나 1533년에 복직되어 성균관학관(成均館學官)·경성교수(鏡城敎授)·전적·양현교주부(養賢庫主簿)·봉상시판관 등을 역임하였다. 조광조가 이끈 중종대의 사림파에 가담하였다. 구례현감으로 부임할 때 국왕에게 향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임지에서 《근사록》을 간행하여 보급하였다. 남원시의 영천서원(寧川書院)에 제향되었다. 안처순에게 보내진 서찰을 모은 서간집『기묘제현수첩(己卯諸賢手帖)』이 보물 제1198호로 지정되어 전한다.

「군사공과 태영제공」

▲영가(永嘉) 군거(君舉) 김익(金翼)

蒼蒼萬生命 / 창창한 만백성의

憂樂在一人 / 근심과 즐거움이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네.

皇天眷東方 / 황천(皇天)이 우리 동방을 도와서

聖明御楓宸 / 성명하신 군주 종신(楓宸)에 계신다오.

宵旰肩一心 / 밤낮으로 한결같은 마음을 다하여

撫育以慈仁 / 인자(仁慈)하게 백성들 어루만지고 기르시네.

州郡或未宣 / 주군(州郡)에서 혹 선정을 베풀지 못하면

惠澤豈及民 / 은택이 어찌 백성에게 미치겠는가.

九重深且濶 / 구중궁궐 깊고 또 그윽하니

懷抱安能伸 / 회포를 어찌 잘 펴겠는가.

親民無過此 / 백성을 친애함은 이 수렵보다 더함이 없으니

字牧當日新 / 백성을 날로 새롭게 애육(愛育)해야 하네.

既富方有教 / 넉넉하게 해주고 나서 가르쳐야 하니

率先不外身 / 솔선수범은 자신에게 벗어나지 않는다네.

躬行乃可推 / 몸소 행하여야 이에 미루어갈 수 있으니

仁愛自孝親 / 인과 사랑은 어버이에게 효도함에서 시작되네.

萬物苟得性 / 만물이 만일 본성을 얻는다면

대호군공과 향사봉행



지난 4월 4일 (음 3월 14일) 전남 나주시 금천면 죽촌리 상촌마을 대호군공 재실에서 대호군공과 향사가 40여 명의 후손이 참여한 가운데 엄숙히 봉행되었다. 이 날 향사 분정은 초헌관에 겸종 파종회장,

아헌관에 봉회 대종회장, 종헌관에 찬회 종친, 집례는 태만, 대축은 태식이였다. 화창한 날씨 속에 충렬공 탄신 800주년 기념사진 공모전에 출품을 위한 사진작가 10여 명이 촬영에 여념이 없었고 파종회에서는 4월 29일 충렬공 탄신 800주년 행사에 버스를 대절하여 참여하기로 하였다.

「태만 대종회이사 제공」

도평의공과 재경종친회 임원모임

도평의공과 재경종친회는 2012년 2월 3일(금) 18:30분 물레방아 한식집에서 신년인사 및 임원모임을 가졌다.

지난해 9월 24일(토)정오 12시 대종회 회관(4층)회의실에서 도평의공과 수도권 종회를 재창립한후 같은해 10월 7일 회장단 및 집행부 모임을 갖고 고문(자문위원)과 이사진을 구성한후, 이번 모임은 자문위원 및 임원 연석회의라서 더욱 뜻깊은 모임이 되었다.

새해 모두의 합동인사후 원종재경종친회 회장님의 인사말에 이어 봉회 대종회 회장님의 격려사와 회수 명예회장님의 덕담인사가 있었다.

이어서 재경종친회 회칙개

정원안과 재정립된 회원명부를 배포하였고, 특히 원종회장은 인사말에서 본회가 발전하려면 무엇보다 각회원의 적극적인 참여 의식과 최소한의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임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마침 전대구종친회장 김광남님이 저술해 보내주신 소중한 자료인 "사촌마을6백년" 책을 배포함으로써 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또한 즉석에서 회수명예회장 20만원, 용화자문위원10만원, 진 감사 30만원, 일수감사30만원, 운중부회장50만원, 태범이사30만원, 부산,경남,울산 도평의공과 회중회장 20만원과 당시 사회를

본 대회부회장은 식대 전액을 찬조하였고, 당시 못하신분들도 계좌(신한은행 110-352-157590 김원중회장)로 일체를 입금하신다 하여 더뜻깊은 자리와 앞으로의 발전을 보였고, 본회 운영에 상당한 힘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빛나는 자리가 되었다.

올해는 충렬공 탄신 800주년이 되는 해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더희망찬 우리 안동김군이 될것과 누구보다도 앞장서자는 우리의 결의 및 위상을 갖는 자리가 되었다.

「도평의공과 재경종친회 사무국장 김우희 제공」

서예가 송원(松苑) 김재신(金在信-郡) 선생의 서예전열어



2012년 5월 4일(금요일) 오후2시에 충북 음성읍에 소재한 '雲菴書苑'에서 書藝家 松苑 金在信 先生の 70년을 돌아보는 서예전이 열렸습니다.

다수의 내.외빈이 참석한 기념식에서 축하 테이프 절단식을 마치고 松苑 선생은 인사말을 통하여 음성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일찍이 漢學에 입문하고 어렵게 성장하여 공직(서울시)에 들어가 생활하면서 10여 차례의 生死를 넘나드는 큰 수업을 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修養을 위한 사모님의 권고로 붓을 잡은것이 書藝家로

서 立身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퇴임한 후에 춘천에서 서예학원을 운영하다가 고향 음성으로 귀향하여 書院을 열게 되었으며, 힘은 와중에도 松苑선생은 작품활동에 전념하여 국전에 출품한 작품들이 특상을 비롯한 여러 수상작이 있으며, 이번 전시회에서는 이진(李鎭)선생이 지은 '충렬공김방경묘지명'과 '충무공 김시민장군비문'을 비롯한 구국충신 금석문 등 1천여 점의 작품을 선정하여 書藝家 金在信의 70년生涯를 險生錄이라 기록하고 위태로웠던 생애를 회고하는 전

시를 열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직지의 위상을 정립시키기 위해 직지원본에 있는 164개의 법어를 길이 2m, 넓이 40cm의 면천에 옮겨 쓰며 선(禪)의 요체를 깨달으며 병마와 싸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우리 문중에서는 대종회 김봉회 회장님과 김관목 대종회 전사무총장님, 군사공과 김재화 회장님, 안림사공과 김태문 회장님, 그리고 군사공과 김준희 부회장님과 필자(태영 군사공 총무)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우리문중을 대표해서 김봉회 회장님이 축사를 해주었고, 지역에서는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음성군내 기관장을 비롯한 한국서화작가협회 서예가 선생님들과 가족들이 다수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습니다.

• 상설전시장 : 충북 음성군 읍내리 503-30

• 운암서원 (043)872-3379
「군사공과 태영 제공」

꼭! 읽어보세요

이 회보는 여러분의 회비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회비 납부실적이 저조하여 타 예산에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상회비(년 2만원) 또는 평생회비(이십만원)를 꼭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비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계좌로, 회비를 내지 않으면 회보 발송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 회비, 찬조금 입금 계좌

- 국민은행 356201-04-133305
 - 농협 351-0222-3309-83
- 예금주 안동김씨대종회

香田園藝

경조화환 · 화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448-21
TEL : 02-445-9777, 6888,
02-783-3166
FAX : 02-445-6999
H.P : 010-2490-0707

전국 꽃배달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대표 김재균



백범일지 독서 감상문을 모집합니다. 꼭 제출하여 주세요!

지난 4월 29일 안동달충공영장 충렬공탄신 800주년 경모제전에서 배부한 백범일지는 백범기념사업협회의 지원품입니다. 백범일지를 읽고 감상문을 안동김씨 대종회에 제출하시면 업종 심사하여 2013년 3월에 안동김씨 대종회 제46회 정기총회에서 백범기념사업협회 정관에 따라 표창할 계획이오니 많은 제출을 바랍니다.

1. 제출방법 : 감상문을 직접 대종회에 제출
• FAX: 02)2243-1073.
• e-mail: andongkingu@naver.com
2. 제출기한 : 2012년 12월 31일
3. 제출자격 : 백범일지를 읽은 누구나 (본관과 성별 연령등 제한 없음)

충렬공탄신 800주년 성금을 계속 모금합니다.

충렬공 탄신 800주년 기념행사는 전국에 계신 안동김씨 현종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경모제전은 끝났으나 앞으로 학술대회와 백서발간의 금번 행사 기념비석건립등의 계획이 있으니 성금모금에 적극 협조 바라옵고 이번 성금 납입은 행사기록을 안동에 석조물로 남길 계획이며 100,000원 이상 납입자는 석조물에 새겨 영원히 보존할 계획입니다.

◎납입계좌: •국민은행 : 356201-04-132759

•농협 : 351-0222-3309-83 •예금주 : 안동김씨대종회

성금을 보내주신 종친께 감사드립니다. (2012. 2. 2 ~ 5. 10)

- ◎평생회비(20만원)
(典)재산(연기), (郡)송묵(서울), (翼)창남(거창), 태원(공주), 두회(강릉), 영인(사천김씨, 서울)

計: 1,200,000원

- ◎찬조금
- 20만원: (翼)월량종회
- 10만원: (按)재우(서울), 두회(양평)
- 5만원: (典)석찬(안성), (文)상식(예천), (大)재갑(합평), (提)도웅(천안), (按)재관(청원), (翼)용해(인천), 재명(사천김씨, 서울), 무명1(공주)
- 3만원: (按)태현(포천)
- 2만원: (翼)창남(거창)

計: 850,000원

- ◎통상회비
- 5만원: (文)천회(전주), (郡)영수(서울), (按)민회(중평), (翼)재화(진주), 논산종친회
- 4만원: (文)태윤(전주), (按)춘식(서울), 재택(오창)
- 3만원: (密)용화(화성), (郡)완회(평택), (典)두교(화성), (副)기호(서울), (文)사용(서울), (提)규호(괴산), 명식(원주), 정웅(천안), (按)태무(서울), 재만(대전) (翼)수돈, 재환, 을순, 원식(서울), 재방, 수길(부산), 재복(당진), 태관(청주), 동진(未)

- 2만원: (郡)홍묵(평택), (典)재현(연기), 태진(일산), 재웅, 규회, 재용, 철회, 태경, 중회(서울), 평회, 용회(김포), 보회(부천), 태익(칠곡), 상식(창녕), (文)특호, 윤만(서울), (郡)광남(대구), 영복(의성), 해수(안동), (大)성무, 태성(보성), (提)상기(천안), 용환(대구), 원웅(제천), 규범, 광회, 철호(서울), 정식(인천), (按)중회(천안), 창회(수원), 태길(서울), 성암(대전), 태열(오창), 재하(충주), 태봉(인천), (翼)수대(영주), 노수, 선창, 정회, 재한, 호식(서울), 원식(경주), 수열(정읍), 태위, 수탁(대구), 윤한(논산), 준회(김포), 복남(음성), 화자(대구), 진태, 종대(영주), 철회(예천), 태호(충주), 천일(천안), 재형(김해), 승렬(대전), 상용(성남)

- 1만5천원: (按)태연(서울)
- 1만원: (文)재희(서울), 수섭(예천)

計: 2,115,000원

- ◎장학기금
- 3만원: (提)태덕(광명시)

충렬공 탄신 800주년 성금 (2012. 4. 6 ~ 5. 10)

- ◎개성윤공파 (1,300,000원)
- 50만원: 이경(일산) - 30만원: 웅선(서울)
◎군사공파 (4,970,000원)
- 5만원: 재찬(대구)
◎전서공파 (3,500,000원)
- 100만원: 파종회 - 50만원: 춘교(인천)
- 10만원: 태화(대구청장년회회장)
◎부사공파종회 (1,100,000원)
- 100만원: 파종회 - 10만원: 태형(철원)
◎문온공파 (7,850,000원)
- 100만원: 영천시종친회
- 30만원: 재호(의정부), 직제학별제공, 광도(서울), 윤식(양주), 용구(서울), 참의공계 봉동종중,
- 20만원: 재권(대구) - 15만원: 수길(대구)
- 10만원: 천회(전주), 재석(대구)
◎안정공파 (200,000원)
◎도평의공파 (24,050,000원)
- 50만원: 원중(재경회장, 서울)
- 30만원: 우회(서울),
- 20만원: 원회(서울)
- 10만원: 정중(대구), 태성, 정수(의성)
- 5만원: 시찬(?)
◎대호군공파 (950,000원)
- 10만원: 보성문중
- 5만원: 성태(수원)
◎제학공파 (5,500,000원)
- 300만원: 파종회
- 50만원: 남웅(천안),
- 30만원: 수도권종회, 태욱(서울), 한식(청주)
- 10만원: 정웅(천안)
◎판삼사공파 (500,000원)
◎안렴사공파 (9,200,000원)
- 50만원: 용세(서울),

- 30만원: 태영(서울), 태봉(인천)
- 20만원: 성회(서울)
- 5만원: 재만(대전)
◎익원공파 (17,810,000원)
- 110만원: 강식(하남)
- 50만원: 대구익원공파종회, 선회(서울), 강릉종회(주부공), 석교(안동), 안동시화수회(회장 호식)
- 30만원: 창식(용인), 태규(상주), 재진(당진), 광득(안동), 근식(서울), 용세(당진)
- 20만원: 순회(대구), 안동시화수회(총무 태휘), 영주지구종회(회장 창교)
- 10만원: 정회(대구), 진일, 상식(안동), 영채(양양), 문회(대전)
- 6만원: 태린(영주)
- 5만원: 주식(영주), 진일, 용복, 수연, 정순(안동), 수갑(의성), 재택(논산)
- 3만원: 석회, 재숙(안동)
- 2만원: 성회(안동)
- 1만원: 차숙, 연숙(안동)
◎서운관정공파 (2,600,000원)
◎정의공파 (1,000,000원)
◎기타 (32,350,000원)
- 200만원: 안동종친회
- 100만원: 대구종친회, 청주종친회, 아산종친회(회장 찬회)
- 50만원: 용인시종친회, 사천김씨재경종친회
- 30만원: 철원읍종친회, 철원종친회회장(태형)
- 20만원: 대구안김산악회, 월촌문중(의성 안평면 신월리), 진천군종친회
- 10만원: 안동시종친회 며느님, 따님, 녹전면체육회
- 5만원: 금녕김씨안동종친회 김광연회장, (未)문화(?), 주년(안동)

計: 28,810,000원
累計: 112,880,000원

충렬공 탄신 800주년 기념행사

화 환

- 국회의원 김재경
- 국회의원 김성회
- 국회의원 권택기
- 국회의원당선자 김한표
- 백범기념사업협회 회장 김 신
- 안동김씨 안렴사공파종회
- 영가회회장 유종묵
- 안동김씨대종종회장 김명년
- 전주유씨안동수곡파 서울화수회장 유필휴
- 풍산류씨문중
- 재경 풍산읍향우회장 이준석
- 족보의 명가 엔코리안 주식회사
- 순흥안씨안동종회 회장 안철호
- 스포츠서울발행인 회장 김준목
- 풍림화섬(주) 풍림섬유(주) 회장 허동진
- 사천김씨재경종친회 회장 김영인
- 창녕조씨안동종친회 회장 조규도
- 한국성씨총연합회 총재 황상득
- 풍산김씨 허백당문중
- 서운관정공파종회 이사장 김재준

축 전

- 회상사 대표 박병호
-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 회장 이상연
- 영가체육회 류일성